

연안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에 관한 연구

하민재* · 이영찬** · 이수진*** · 하신영**** · 정해성***** · † 국승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IT공학부 교수,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요 약 : 주 5일제 근무, 개인 여가문화 확산, 국민 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해양을 레저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박을 이용한 레저활동의 경우에는 안전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안 해역에서의 해양활동에 대하여는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 이용객에 의한 사고통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연안 이용객의 안전장비 착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연안 해역, 연안 이용객, 안전장비, 연안 사고



필요성 검토를 위한 분석 개요

- ❖ 사고 데이터 기반 통계분석 개요
 - 관찰기준 : 해경 전체, 지방청, 해경서 기준 정리
 - 연안 형태 : 10가지 형태로 구분(해경 구분근거에 따름)
 - 갯바위
 - 갯벌
 - 무인도서
 - 방파제
 - 테트라포트
 - 양포구
 - 해수욕장
 - 해안가
 - 해양
 - 기타
 - 기간 : 2017~2019 발생 사고 데이터(최근 3년치)

연안 이용객 구명조치 착용 의무화 필요성 검토

❖ 2017~2019년 전체 사고건수 : 2,397건(연간 약 800건 발생)

지역	부산	울산	경북	충청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남해지방청	180	191							
동해지방청			116	113					
서해지방청					127	105	65		
제주지방청	166	117							
중부지방청				238	306				

지방청별 비율: 남해청 30%, 동해청 23.70%, 서해청 13.42%, 제주청 15.30%, 중부청 13.60%

== 부산, 통영, 태안, 인천, 제주 등의 해경서 관할에서 많이 발생(전국적으로분포)
 == 남해청, 중부청의 비중이 높음(인구밀집도, 접근성, 레저이용의 편이성 등)

연안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필요성 검토

❖ 2017~2019년 시간대별 발생 사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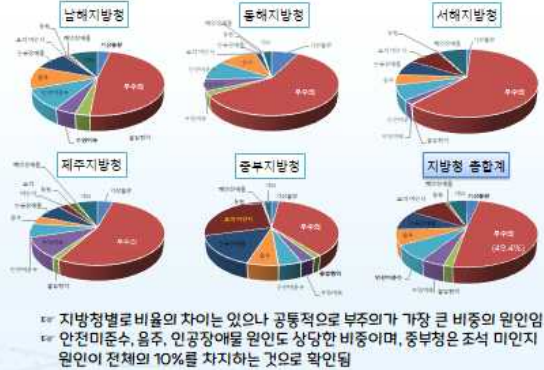
연안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필요성 검토

❖ 2017~2019년 연안 장소별 사고발생 현황



연안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필요성 검토

❖ 2017~2019년 원인별 연안 사고 발생 현황



연안 사고 통계분석 시사점

❖ 2017~2019년 연안 사고 통계분석 시사점

- 1) 전체 사고발생 건수 대비 익수 사고 비율이 55%인 것으로 확인됨
- 연안 이용객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시 익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 휴가철, 휴일에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높음
- 야외활동(레저활동 등) 증가 ⇒ 사고 가능성 증가 예상
- 3) 지역별로 연안 사고 장소는 차이를 보임
- 특정 장소를 공통으로 지정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안계 有
- 4) 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임

연안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방안

❖ 연안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방안(1)

- 1) 해경서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착용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높은 장소 영역(관할구역 내)을 의무착용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과 유사한 방식
- ☞ 장점: 지역별 고유한 특성 반영 가능(최적)
필요한 장소 영역만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가능
- ☞ 단점: 이용객의 혼란 야기 가능성(·같은 해경 관할 내 장소별로 다름)
해경서별 부가 업무 가중

연안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방안

❖ 연안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방안(2)

- 2) 특정 장소영역에서 특정 행위시 의무 착용하는 방안
 - 해경서 구분 없이 구분된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시 의무착용하는 방안
 - 분청 차원의 시행방안에 따라 전국 연안 지역 공통 적용
- ☞ 장점: 구명조끼 의무착용에 대한 혼란 최소화
전국 단위의 공통 내용 지정이므로 연장 해경서의 업무 부담 감경
- ☞ 단점: 지역별 고유한 특성 반영 한계
실제 위험이 낮은 곳(의무착용 불필요)도 의무착용 구역으로 분류되어 행정력과 경제력이 낭비될 수 있음

맺음말

- ✓ 연안 이용객을 갈수록 증가 예상
⇒ 이에 따른 연안 이용객 익수사고도 함께 증가 예상
- ✓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검토가 필요한 시점
- ✓ 해경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도모 필요

감사합니다